

S-Oil

세계 초일류 회사로의 힘찬 도약



S-Oil(대표이사 회장 金鮮東)은 1976년 1월 6일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가경제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합작사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 5월 사우디 아람코사와의 합작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증설, 신규사업확대 및 연구개발을 통한 고품질 제품의 공급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등 내수와 수출의 조화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정유사로 성장·발전해 왔다.

회사성립과 발전

S-Oil은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과동의 위기속에서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절실했던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76년 설립되었다. 회사창립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S-Oil은 후발 정유사로서의 온갖 역

경을 극복하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미래형 정유공장을 실현하였으며, 아시아 역내시장에 대한 최대의 석유제품 공급자이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정유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S-Oil은 울산광역시 공단내에 40만평의 부지를 조성,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회사를 설립한지 4년 만인 1980년 5월에 정유공장의 상업가동을 시작하였고 1981년 1월에는 윤활기유 공장이 상업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정유-윤활공장』의 가동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하루 52만5천배럴의 원유정제시설을 비롯 하루 20만배럴의 중질유 분해·탈황시설(B-C Cracking Center), 연산 79만톤의 방향족시설, 연산 60만톤의 파라자일렌시설, 하루 1만2천배럴의 윤활기유시설 및 1천5백배럴의 윤활유시설 등을 갖춘 정유회사로 발전하였다.

S-Oil은 가동 초기 후발 정유회사로서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해외부문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 외부적으로는 산유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해외시장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인 원유 임가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 및 가동율을 제고하였고 내수 부문에서는 영업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1982년부터 독자경영을 실현하여 안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87년 5월에는 상업가동 7년만에 기업공개를 단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한태평양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정유회사로

S-Oil은 한태평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정유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확장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의 질적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1991년 5월 세계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사와 자본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년 장기 원유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우디 아람코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약 1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대규모 B-C크래킹센터의 건설을 추진, 1997년 4월 이를 준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선진국형 정유공장을 실현시켰다. 또한 1997년 12월에는 석유화학 기초유분인 파라자일렌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일렌센터의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BTX(벤젠,톨루엔,자일렌)계열 제품의 고도화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S-Oil은 대규모의 원유정제 시설과 더불어 B-C크래킹센터 및 자일렌센터의 완공으로 모든 생산시설의 운영이 최적화되고 고부가가치

화됨으로써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석유화학하류부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 석유산업계에서 성공적인 협업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사우디 아람코사의 협업관계는 국제 석유시장에서 S-Oil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람코사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기반의 창출 및 도약을 위한 해외투자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래형 정유공장의 실현

S-Oil은 1980년 9만3천배럴의 제1기 원유정제 시설을 상업가동한 이후 2차례의 증설을 거쳐 하루 정제능력 52만5천배럴의 대형 정유회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경질유 탈황시설과 휘발유 제조시설은 물론 최고급 윤활기유 제조시설과 BTX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S-Oil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질유제품 수요 증가와 환경규제강화 등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모든 생산제품을 경질화,저유황화할 수 있는 대규모 B-C크래킹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S-Oil의 B-C크래킹센터는 프랑스의 IFP기술을 응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처리용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새로운 개념의 첨단 공정시설이며, 1단계 시설인 하이드로 크래킹시설(Hydrocracking Complex)과 2단계 시설인 잔사유 접촉분해시설(Residue FCC Complex)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의 완공으로 S-Oil은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질유 수요증가와 환경규제 강화에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전체 생산시설의 최적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 정유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급 윤활기유 및 윤활유의 생산·공급

S-Oil은 설립당시 첨단기술에 의한 자본집약적 산업인 고급 윤활기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 윤활기유의 자급체제 구축을 가늠케 하였다.

이 시설은 당시 최신 공정이었던 걸프(Gulf)사의 수소첨가개질공법을 채택하여 건설한 이후 모빌(Mobil)사의 탈납공정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대량의 고급 윤활기유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내 및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S-Oil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윤활기유 부문의 강점을 활용, 자동차용 윤활유외에 산업, 선박, 기계용윤활유와 절연, 압연유 등 고품질의 윤활유 완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윤활기유로부터 윤활유까지 통합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석유화학분야로의 진출

S-Oil은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1991년4월 나프타 개질공정 및 BTX생산시설을 상업가동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꾸준한 증설과 공정개선을 통해 현재 나프타 개질시설은 하루 4만5천배럴, BTX생산시설은 연산 79만톤 규모의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에 단일공정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연산 60만톤의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자일렌(Xylene)센터의 건설을 완료, 석유화학 부문에도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 공장은 단위당 투자비 부담을 크게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BTX공정에서 나오는 저가의 Heavy Aromatics를 파라자일렌 생산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비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S-Oil은 휘발유 제조원

가 절감은 물론 석유화학하류부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과 고객만족 경영

S-Oil은 휘발유,등유,경유,윤활유 등 모든 제품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고급화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991년 11월 울산에 기술연구소를 설립, 제품개발과 품질개선 및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 회사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품질고급화 노력은 국내 석유제품의 품질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받아왔다.

S-Oil은 공해물질인 벤젠을 환경기준치 이하로 대폭 낮추고 마찰저감제를 첨가하여 연비를 탁월하게 향상시킨 5세대휘발유 “슈퍼클린+”와 국내난방용 석유제품중 유일하게 환경마크를 획득한 “청정등유”, 황성분을 환경규제치보다 훨씬 낮은 “보일러등유” 및 공해물질 배출은 줄이고 세계적 수준의 엔진세척제를 첨가한 저공해경유 “0.05슈퍼디젤”을 판매하고 있다. 윤활유에 있어서도 자체 생산하는 최고급 윤활기유로 제조한 첨단윤활유 “슈퍼드래곤”을 공급하는 등 모든 제품에 있어서 공해물질 함량이 가장 낮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S-Oil의 이러한 고품질에 대한 철학은 오로지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객만족 경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S-Oil은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수송비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타사와 제품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고객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고객만족에 바탕을 둔 S-Oil의 연구개발 활동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함

으로써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면서 나아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환경친화적 제품생산과 환경경영체제 구축

S-Oil은 인간존중과 환경보존을 기업의 사명으로서 인식하고 공장 건설단계에서부터 탈황시설, 첨단 폐수처리시설, 분진제거시설 등 각종 공해물질 제거시설을 완비하고 꾸준한 시설개선과 신공정 도입을 통해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및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Oil의 품질고급화 노력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 및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기업철학이 담겨있다. S-Oil은 자체 환경방침을 제정하고 전 구성원이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1996년 11월에는 모든 공정의 연료유, 윤활기유, 석유화학제품 및 윤활유 완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경영 의지를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S-Oil은 원유의 도입에서부터 생산, 저장,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 환경경영체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기업의 역할

1960년대초 정유공장이 설립된 이후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로 경쟁체제가 도래하기까지 그동안 석유산업은 경쟁의 무풍지대에 안주해 온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를 계기로 정유사간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S-Oil은 경쟁상황이 가져오게 될 변화의 물결을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이에 대비해 왔다. 후발주자로 석유산업에 참여한 S-Oil은 석유산업 자유화가 거론되기 이전부터 소비자를 위한 경영만이 고착화된 내수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평가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소비자 중심의 경영전략을 펼쳐왔다.

S-Oil은 생산되는 모든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그동안 Seller's Market에 안주해 오던 국내 정유업체에 품질경쟁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1994년 고옥탄 휘발유 및 청정등유 출시, 1995년 5세대휘발유 "슈퍼클린", 1996년 저벤젠 휘발유 "슈퍼클린LB" 및 저유황경유 "0.05슈퍼디젤", 2000년 연비향상 휘발유 "슈퍼클린+"에 이르기까지 S-Oil은 석유제품 품질고급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기업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또한 S-Oil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석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업가동 초기부터 내수중심의 마케팅 관행을 탈피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생산물량으로 50%수준, 금액으로 20억달러수준의 수출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정유산업은 곧 내수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선진국 수준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S-Oil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태

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석유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S-Oil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경영으로 IMF구제금융하의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업계 최고수준의 이익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경영보다는 질적경영에 우선순위를 둔 경영합리화를 추구해 오면서 낮은 부채비율과 안정된 재무구조를 정착시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 미국의 권위있는 매체인 "포춘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신망받는 회사중의 하나로 S-Oil을 선정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S-Oil은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극대화를 실현시켜 이러한 경영성과가 소비자와 주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국내 상장사중 최고수준의 배당수준(50%현금배당)을 유지함으로써 고율 배당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성실한 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하에 고액의 법인세 납부 등 성실납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 1996년 3월 조세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Vision

1999년 말 쌍용그룹에서 분리되어 독자경영을 해 온 S-Oil은 2000년 3월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첨단산업으로의 진출의지 및 새로운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명을 "쌍용정유"에서 "S-Oil"로 변경하였다. 당시 국내 정유업계에 휘몰아쳤던 지각변동으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위기를 임직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단행된 사명변경은 S-Oil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S-Oil은 사명변경과 동시에 회사의 Vision에 걸맞는 새로운 CI를 도입하여 고객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S-Oil의 "S"는 대표브랜드이자 고객을 위한 기업정신인 슈퍼클린(Super Clean)을, 붉은색 "I"는 인터넷시대에 첨단전략 수출산업 진출을 통해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S-Oil은 2000년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수준에 손색없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경영,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에 바탕을 둔 미래Vision의 경영 및 미래의 인재를 개발하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의 조화를 꾀하면서 영업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석유화학회사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기존 석유화학부문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확대를 적극 모색하며, 윤활기유 부문의 경쟁우위 체제를 공고히 하여 세계 최고의 윤활기유 메이커로 발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바, 인터넷을 통한 무역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금융업 진출도 검토중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S-Oil 임직원 모두는 "환태평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전문 정유회사로 성장"한다는 회사의 Vision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